한국언론학보
2021년 65권 2호 5~40쪽
https://doi.org/10.20879/kjjcs.2021.65.2.001
http://www.comm.or.kr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의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 연구

학과소속감과 학업지속의도를 중심으로

이혜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ZHOU NAN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조재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부교수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isolation and parasocial inter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Focusing on the sense of departmental belong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Hye-Sun Lee**
Ph. D.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s, Sogang University
ZHOU NAN
Ph. D.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s, Sogang University
Jaehee Cho***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Media, Arts, and Science, Sogang University

The universities in Korea have experienced unprecedented and radical changes, such as campus closure and expansion of online-class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any university students have experienced social isolation and a lack of social interactions on campu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thoroughly analyzing the potential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university students. Therefore, this present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potential negative impact of social isolation on university students in the COVID-19 context. Particularly, this research analyzed how social isolation affected university students' sesnses of departmental belonging and intentions of education continuance.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parasocial interaction with preferred instructors on university students as they have experienced interactions with those instructors through

* This study was aided by the master's course KARLSSON Anna Maria Elin in the data collection process. We highly appreciate the reviewers' insightful and helpful comments on our study(이 연구는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석사과정 KARLSSON Anna Maria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발전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심사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hsle@sogang.ac.kr

*** jcho76@sogang.ac.kr, corresponding author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online classes. The main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included three major paths corresponding to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The first path involves the negative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departmental belong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The second path describes the mediation effect of departmental belong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The third path regards the positive effect of parasocial interaction with preferred instructors on students' belonging to the department. The study collected self-report online surveys from 120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 students. Data analysis found that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isol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belonging to the department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However, social isolation's direct effect was not significant when the effect of belonging to the department was controlled for.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social isolation possibly exerted influence on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by lowering one's sense of departmental belonging. On the other hand, university students' belongingness to the department increased as they had higher levels of parasocial interactions with preferred instructors. This present research proposed that parasocial interactions with preferred instructors and social isolation would be variables that could independently affect students' belongingness to their department, considering the in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m. The study's main results indicate that university students' belongingness to their department and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were negatively influenced by social isolation in the COVID-19 context. This implies that universities should take more efforts to reduce university students' social isolation. It was also meaningful that parasocial interactions through online classes could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students' sense of belonging to their department.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one's sense of departmental belonging, where students perceive themselves as valuable and suitable for the department organization, is a crucial factor in continuing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eywords: COVID-19, social isolation, parasocial interaction, department belonging,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1. 서론

2020년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환경요인을 꼽으라면 단연 코로나19(COVID-19)일 것이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4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0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7,9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WHO, 2020, 12, 28). 코로나19 관련 연구는 2020년 전반까지만 해도 예방 행동이나(Naja & Hamadeh, 2020) 예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처럼(Lüdecke & von dem Knesebeck, 2020) 개인의 행동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사태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어셔와 동료들은(Usher, Bhullar, & Jackson, 2020)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격리가 교도소에서의 처벌이나 비난에 비유될 만큼 생소하고 불쾌한 경험이며,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경험이 사회적 유대감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과소 평가된 공중 보건 위험'이라고 설명하며(Wu B, 2020), 특히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Johnson, Pagano, Lee, & Post,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고립감(social isolation)이 발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탐구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폐쇄나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과 같은 전례 없던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학이라는 조직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위기로 작용한다(Hamza, Ewing, Heath, & Goldstein, 2020). 캐나다에서 진행된 함자와 동료들의 연구(Hamza et al., 2020)는 1년에 걸친 종단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사회적 고립감이 기존에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던 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우려하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나(이동훈 외, 2020), 국내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성인 초기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지니며(Erikson, 1968; Havighurst, 1972),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사회적 통합을 경험한다(Tinto, 1987). 하지만 대학에 소속된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학교 출입 통제,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같은 비자발적인 물리적 격리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준거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발생하는 고립의 감정이자(김태형, 2014) 실제 고립되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차원인(Vincenzi & Grabosky, 1987) 사회적 고립감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사회적 고립감은 10일 미만의 고립 경험으로도 부정

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Brooks et al., 2020) 대학 생활 적응의 지표인 학업지속의도(최성애·박주영, 2018)와 관련이 있다. 학업지속의도(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저하는 대학이라는 조직을 이탈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Bean, 1982). 특히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청년 초기인 대학(원)생의 주요 발달과업임을 고려할 때(Erikson, 1968), 준거집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학 조직에서 이탈한다면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Banerjee, & Rai, 2020; Stickely & Koyanagi, 2016).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대학(원)생의 조직 이탈을 의미하는 학업지속의도 저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연구는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물리적 격리 경험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축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박용천 외, 2020). 박용천과 동료들은(2020)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이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 측면의 연구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첫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이 심리적 악영향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Polizzi, Lynn, & Perry, 2020),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학과소속감(sense of belonging)이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학과소속감이 발휘하는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대학에서 경험하는 온라인 수업을 통한 상호작용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물리적인 격리로 인해 면대면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이 사회적 관계 유지 활동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용천 외,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을 향해 형성하는 친밀한 관계인 의사사회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을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교수자에게 적용하여, 학과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학은 성인 초기에 진입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준거집단이 될 수 있으며, 대학 조직의 주요 역할은 구성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Astin, 1993). 하지만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오랜 기간 비자발적인 물리적 격리를 경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자발적인 물리적 격리를 경험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특수한 환경에 주목하여,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분리해서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고립감은 현실

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de Jong-Gierveld, 1987),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다(Horton & Wohl, 1956).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 조직 이탈을 의미하는 학업지속의도 저하에 미치는 영향과 학과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비자발적인 물리적 격리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학과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에서 형성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에 발휘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선행연구는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궁극적으로 해당 집단에 소속되려는 욕구와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Hall & Davis, 2017).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대학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과소속감과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대학 조직 내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고립감과 학업지속의도

2020년에 발표된 여러 선행연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였다(박용천 외, 2020; Hamza et al., 2020; Usher et al., 2020; Wu B, 2020). 타운젠트(Townsend, 1955)가 사회적 고립감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노년층이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언급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을 사회적 연결망이나 의미 있는 집단 구성원과의 접촉 혹은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한다(Smith, Gavey, Riddell, Kontari, & Victor, 2020).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고립감이 단순한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애착, 사회적 통합, 가치의 확신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함을 의미한다(Weiss, 1973). 또 다른 선행연구는 사회적 고립감을 준거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발생하는 고립의 감정으로 보았으며(김태형, 2014), 주관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정서적 차원과 실제 고립되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차원을 포함한다는 시각도 있다(Vincenzi & Grabosky, 1987). 즉, 자신이 원하는 만큼 친밀감의 수준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de Jong-Gierveld, 1987). 과거에는 사회학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감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주영주·유나연·설현남, 2012), 최근에는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진다(김춘남·박승민·박승희·김서인, 2018). 연구대상

역시 노년층(조재희·조해영, 2017), 결혼이주여성(정혜원, 2020), 고독사 위험군으로 지목된 중·장년 남성(박선희·최영화, 2020)뿐만 아니라 청년(박민선·정순둘, 2020)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에 주목한 선행연구는(최윤정, 2012) 성인 초기에도 다양한 조건에 의해 사회적 고립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에 주목했던 연구는 에릭슨(Erikson, 1968)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지목한 점을 언급하였다(김재희·박은규, 2016). 에릭슨에 따르면 성인 초기에는 친밀감 혹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인 초기에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헌신이나 깊은 감정을 공유하는 친밀함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Weinberger, Hofstein, & Whitbourne, 2008), 해비거스트(Havighurst, 1972) 역시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제시하였다. 정혜원(2020)에 따르면 준거 집단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되거나 사회적 관계가 중단되는 등의 환경요인도 사회적 고립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대학이라는 조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사회적 관계가 중단된다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선행연구는 사회적 고립이 과소 평가된 공중 보건 위험이며(Wu B, 2020) 특히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Johnson, et al., 2018).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격리 경험이 자신을 사회로부터 더더욱 격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Banerjee, & Rai, 2020; Stickely & Koyanagi, 2016). 사회적 고립감의 악순환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왔다. 예를 들면, 사회적 고립감은 준거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개인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문제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다(박진영, 2016).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개인은 조직 내에서 필요한 정보나 사회적 관계 같은 자원을 획득하기 어려우므로(김영범, 2018),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면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될 수 있다(안지영·김종남, 2017). 사회적 고립감이 결국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extreme social isolation)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박미진, 2010).

대학생에 주목한 연구는 준거집단 구성원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하

는 사회적 고립감과 대학 생활 적응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조옥희·황경혜, 2017). 특히 학업 지속 의도는 대학 생활 적응의 지표이며(최성애·박주영, 2018), 빈(Bean, 1982, p.293)은 대학생의 학업지속의도에 퇴사 의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교육 기관에 계속 등록할 수 있는 예상 가능성"이라고 설명하였다. 빈(1982)의 논의에 따르면 대학생의 학업지속의도 저하는 대학 공동체 구성원인 대학(원)생의 조직 이탈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 공동체 구성원인 선·후배와의 상호작용은 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를 낮추며(강명희·이은경·이응택, 2019), 학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 대학 신입생은 대학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유대감 수준이 높다(박은주·이혜경, 2016).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자신이 소속된 학과에 머무르려는 의도인 학업지속의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원)생의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대학(원)생의 학업지속의도에 부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2) 사회적 고립감과 학업 지속 의도의 관계에서 학과소속감의 역할

사회적 고립감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으로 어딘가에 속해있다고 인식하는 소속감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김태형, 2014). 매슬로우(Maslow, 1987)는 친밀함과 유대감을 기반으로 타인과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보았다. 소속감을 사회적 유대감(Social Connectedness)이라고 설명한 선행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유대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에게서 멀어지는 고독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Lee & Robbins, 1995). 사회적 고립감은 준거 집단 구성원과 신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Tomaka, Thompson, & Palacios, 2006), 소속감은 관계 혹은 조직을 향한 개인의 참여 과정에서 자신이 가치 있으며 적합하다고 느끼는 감정에 주목한다(Hagerty, Lynch-Sauer, Pausky, Bouwsema, & Colier, 1992). 특히 하거티와 동료들(Hagerty et al., 1992)은 가치 있는 참여(valued involvement)와 적합성(fit)을 소속감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지목하였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가치 있는 참여는 조직이나 관계에서 자신이 가치가 있고 필요한 존재이며 수용되었다는 느낌을 의미하고 적합성은 자신의 특성이 해당 조직에 연관되거나 보완된다는 인식에 주목한다. 굿이노(Goodenow,

1993)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각 학교에서 경험하는 소속감이 학업 지속 의도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특히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사회적 고립감이 학교라는 조직에서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속감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학습자 통합 모형(Student Intergration Model: SIM)을 제안한 틴토(Tinto, 1987)는 대학 조직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이 사회적 통합을 거쳐서 학업 목표나 조직을 향한 몰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학업중단이나 학업 지속 의도를 상호작용론 측면으로 논의한 연구 역시, 부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통합에 실패하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송영아·김신애, 2019).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자신이 가치 있으며 적합한 존재라고 느끼는 소속감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학업 지속 의도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학과소속감이 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송영아·김신애, 2019), 학과소속감은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는 선행변인이며(이영애, 2006), 학교라는 조직에서 경험하는 구성원과의 사회적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소속감이 저하되어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석숙이, 2000)를 각각 보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과소속감이 매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이러닝(e-learning) 수업에서 성인 학습자가 인식하는 고립감(정용균·김중렬, 2018; 주영주 외, 2012)과 소속감(임연욱·이광희, 2003)이 학업 지속 의도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는 소속감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최우경·김진숙, 2014)는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학업지속의도의 관계에서 학과소속감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원)생의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학과소속감은 매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3) 온라인 학습에서 경험하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학과소속감

틴토(1987)의 학습자 통합모형에 따르면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통합의 선행변인이 될 수 있다. 즉,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립감을 경험하는 학습자일지라도,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통합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예상

하게 한다.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에 주목한 선행연구(이의길·김윤정, 2015)는 교수자를 향한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을 적용하여 학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실재감은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상황에서 타인의 현저성과 대인관계를 인식하는 것에 주목한다(권성연, 2016; Short, 1976). 틴토가 제안한 학습자 통합모형에 따르면 학습자의 사회적 통합은 교수나 동료 학생과 같은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회적 고립감과 학과소속감에 주목한 선행연구 역시, 준거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석숙이, 2000; de Jong-Gierveld, 1987; Smith et al., 2020). 즉, 온라인 수업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실재감에 주목한 연구들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경험하는 상호작용을 논의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지닌다.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수자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수업은 정해진 장소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모여서 얼굴을 마주 보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의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에서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실시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자와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홀턴과 홀(Horton & Wohl, 1956)이 개념화한 것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 보지 않더라도 미디어에 등장한 인물과 마치 실제로 만난 친구처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혜선·나은영, 2020, 85쪽)을 의미한다.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에게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최양호, 1999; Nordlund, 1978; Rubin, Perse, & Pewell, 1987), 최근까지도 미디어 등장인물을 향한 친밀함이나 유대감을 설명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Rihl, & Wegener, 2019; Sarah, Jayson & Tilo, 2019). 하지만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개념화했던 호톤과 그의 동료가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강연 상황에서도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Horton & Strauss, 1957). 강연자와 청중 사이에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며 강연자가 청중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울 때, 강연을 듣는 청중은 마치 자신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 같은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Ballantine, 2005).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메타 연구에서도 강연 상황에서 강연자를 향한 반 의사사회적 상호작용(semi-parasocial interact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Giles, 2002).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강연자와 청중이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청중이 직접 강연자를 만나기 어려울 때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 상황과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목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해외에서는 대학생에게 동영상 형태의 강의를 제공하였을 때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Beege, Schneider, Nebel, & Rey, 2017).

원격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교수자와 상호작용하며, 온라인 학습환경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진 학습자는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Arbaugh, 2000).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있다고 인식하는 소속감을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설명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Lee & Robbins, 1995),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교수자를 대상으로 형성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소속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학습자와 교수자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복잡한 학습환경에 놓인 학습자를 사회적·학업적 측면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Johnson et al., 2007). 학업 환경에서 경험하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소속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이다(Hoffman et al., 2003).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수자와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보다 학습과 관련된 공식적 상호작용이 소속감의 유의미한 선행변인이었다(Meeuwisse, Severiens, & Born, 2010).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수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형태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자를 향해 형성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과 관련된 공식적인 상호작용으로서 학과소속감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이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면대면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논의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형성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학과소속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 속 온라인 수업을 통해 형성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대학(원)생의 학과소속감에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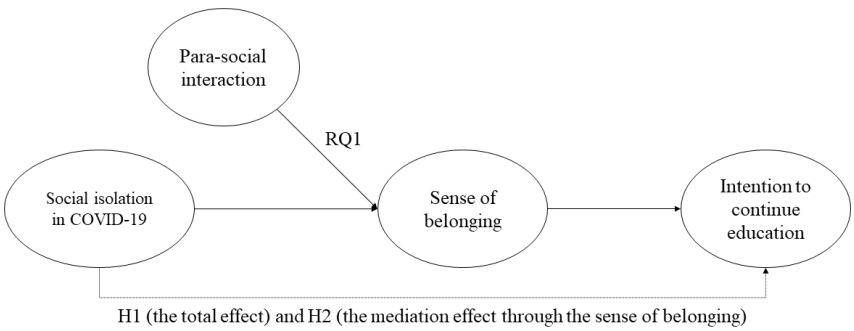

Figure 1. Proposed model of present study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주요 가설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집단에 의존하는 비확률 표집을 실시하여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거나 솔직한 응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송인덕·조성겸, 2013). 설문 대상자 모집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대상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에게 설문조사 진행에 관한 동의를 구한 뒤, 온라인 설문조사 주소를 공유해서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약간의 추가점수(extra credit)가 부여되었다. 둘째,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내국인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문조사 주소를 각각 공유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0년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129부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18세에서 35세를 성인 초기로 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Havinghurst, 1972), 수집된 응답 가운데 18세-35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4개)를 제거하였으며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례(2개) 역시 제거하였다.

선행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전통적인 방법인 지필 형태에 비해 더 정교한 연구 설계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김우영·이태헌·장재윤, 2019). 본 연구는 불성실한 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일관성 척도(inconsistency scale)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 경험 여부와 자신이 경험한 온라인 수업의 형태에 관한 문항을 각 1개씩 배치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동영상 형태와 온라인 실시간 형태(예: ZOOM 혹은 Webex)로 설명하고, 자신이 경험한 온라인 수업의 형태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형성 대상인 선호하는 교수자의 수업에 관해 질문하였다. 답변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전공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은 동영상 혹은 온라인 실시간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3개)가 있었기에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120명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유소연, 2019, 12, 2). 선행연구 역시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고립감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으므로(양징르함·김사훈, 2019; 이채식, 2012),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도 분석대상에 포함하되 국적에 따라 더미변수(내국인=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n	%
Total		120	100
Gender	Male	42	35.0
	Female	78	65.0
Nationality	Resident	86	71.7
	Foreigner	34	28.3
Graduate	Undergraduate 1st year	23	19.2
	Undergraduate 2nd year	31	25.8
	Undergraduate 3rd year	22	18.3
	Undergraduate 4th year	14	11.7
	Master's program attendance	29	24.2
	Ph.D. Program Attendance	1	0.8
Online class format of preferred instructor	Video	46	38.3
	Real time on-line	54	45.0
	Both	20	16.7
Participation period to preferred instructor's class	less than a semester (first time on this semester)	58	48.3
	More than 1 semester and less than 2 semesters	48	40.0
	More than 2 semesters and less than 3 semesters	5	4.2
	More than 3 semesters and less than 4 semesters	4	3.3
	More than 4 semesters and less than 5 semesters	2	1.7
	More than 6 semesters	3	2.5
Face-to-face communication experience with preferred instructor	Have experience	44	36.7
	Not have experience	76	63.3
Student activities	Participating	34	28.3
	Non participating	86	71.7
Part-time work on campus	Participating	22	18.3
	Non participating	98	81.7
Major	Humanities	44	36.7
	Nature	6	5.0
	Social Sciences	29	24.2
	Engineering	4	3.3
	Fine Arts and Athletics	22	18.3
	Not applicable	15	12.5
University area	Seoul	91	75.8
	Gyeonggi	3	2.5
	Gangwon	8	6.7
	Chungcheong	10	8.3
	Jeolla	1	0.8
	Gyeongsang	2	1.7
	Busan	1	0.8
	Dae-gu	2	1.7
	Daejeon	2	1.7

외국인=1) 처리하였다. 표본의 연령 평균은 22.73(S.D. = 2.53)이었으며 연구문제와 가설 분석에는 SPSS 27.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변인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 예상되는 환경요인에 관한 문항을 추가로 배치하여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형성 대상인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형태에 관한 문항을 배치하였다. 분석 결과 66명(55%)은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의 동영상 형태 수업을, 74명(61.7%)은 온라인 실시간 형태의 수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문항의 답변은 각각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선호하는 인물에게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최양호, 1999; Nordlund, 1978; Rubin et al., 1985),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기간이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통제하고자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외에도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와의 대면 소통 경험, 교내근로 참여 여부, 학생 활동 참여 여부에 관한 측정 문항을 배치한 뒤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고립감

선행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하기 위해 ESLI 척도를 사용하였다(최윤정, 2012). 성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하기 위한 ESLI(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척도는 정서적 고립감(8문항), 사회적 고립감(7문항), 정서적 외로움(8문항), 사회적 외로움(7문항)까지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센치와 그래보스키(Vincenzi & Grabosky, 1987)는 ESLI 척도를 제안할 당시 사회적 고립감과 사회적 외로움, 정서적 고립감과 정서적 외로움을 함께 측정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는 고립감과 외로움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두 요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희령(1997)이 번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서적 고립감(8문항)과 사회적 고립감(7문항)을 연구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리커트 4점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문항 대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재값이 낮은 4개 문항을 제거하고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눌 만큼 친한 사람이 없다.',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나에게는 날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 등의 11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11개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강하게 발생함을 의미하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93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하기 적합한 문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학과소속감

대학생의 사회적 소속감에 주목했던 선행연구(김지영·정세영·김은지, 2019)는 사회적 소속감 측정 도구인 PSSM(Psychological Sense of School Membership) 척도를 활용해서 학교소속감을 살펴본 바 있다. PSSM 척도는 굿이노(1993)가 개발하였는데, 학교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진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편안감(12문항)과 자신이 조직의 일부분이라 느끼고 다른 구성원에게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애착(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를 대학생에게 적용한 선행연구(김지영 외, 2019)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도 해당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전수경(1999)이 번안한 내용을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적재값이 낮은 문항을 제거한 결과,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 '나는 학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와 같은 5개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 학과소속감 측정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소속감도 강하게 경험함을 의미하며, 분석에 사용한 5개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85였다.

(3) 학업지속의도

대학생의 학업지속의도를 살펴본 선행연구(Namin, 2003)는 학과에서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학습 방해요소 극복 의지 등과 관련된 6개 문항으로 학업지속의도를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는 해당 문항을 이명화(2015)가 번안·수정한 내용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도를 살펴본 연구가 존재하며(최성애·박주영, 2018), 해당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수용 가능한 적재값을 보인 4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내가 소속된 학과에서 졸업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내가 소속된 학과에서 공부를 그만두고 싶다(역)' 등이었다.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 4개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77로 학업지속의도를 측정하기 양호한 문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본 연구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루빈과 동료들(Rubin et al., 1985)이 뉴스캐스터를 대상으로 측정했던 20문항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상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5개 문항(예: 나는 가끔 뉴스 방송 중에 내가 좋아하는 뉴스캐스터에게 말을 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뉴스캐스터가 휴가 중일 때 그립다)을 제거하였고, 15개 문항 가운데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한 6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내가 좋아하는 학과 교수님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좋아하는

학과 교수님이 온라인 수업에서 하는 말은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 등이었으며,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 6개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85였다.

4.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와 가설들을 분석하기 전, 정규성과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변인의 평균값은 사회적 고립감 2.17(SD = .68), 학과소속감 4.17(SD = 1.29), 학업지속의도 5.55(SD = 1.08), 선호하는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4.50(SD = 1.20)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80에서 .16, 첨도는 -.40에서 1.03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수준이었다(George & Mallery, 2010; Kline, 2005). 상관관계 분석 결과(〈Table 2〉 참고), 사회적 고립감은 학과소속감(r = -.51, p〈 .001) 및 학업지속의도(r = -.37, p〈 .001)와 유의미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는 상관계수가 .5 이상인 요인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Pett, Lackey & Sullivan, 2003). 통제 변인을 추가한 사회적 고립감과 학과소속감의 편상관계수 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5 미만으로 나타나(r = -.41, p〈 .001) 두 변인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학과소속감(r = .27, p〈 . 01), 학과소속감과 학업지속의도(r = .46, p〈 . 001)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Table 2. Result of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variables

	1	2	3	4
1. Social isolation	1			
2. Parasocial interaction	-.06	1		
3. Sense of belonging	-.51***	.27**	1	
4.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37***	.12	.46***	1
M	2.17	4.50	4.17	5.55
S.D.	.68	1.20	1.29	1.08
skewness	.16	-.69	.07	-.80
kurtosis	-.40	-.17	-.38	1.03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 및 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요인을 별도로 측정하여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더미 변수로 변환한 변인은 독립표본 T-검정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고, 연속형 변수는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표

본 T-검정 결과(〈Table 3〉 참고), 성별, 국적, 대면 소통, 학생 활동, 교내근로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므로 각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표본의 학력을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분리하여 더미변수화한 뒤 각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집단 간 평균값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학력은 통제 변인에서 제외하였다.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온라인 실시간 형태 수업 경험(해당없음 m = 4.21, 해당함 m = 4.68)과 동영상 형태 수업 경험(해당없음 m = 4.75, 해당함 m = 4.29)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교차분석 결과 강한 상관관계가 발생하였다(r = .71, p 〈 .001). 상관계수가 .5 이상일 경우 두 요인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Pett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는 경향을 보인 온라인 실시간 형태 수업 경험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의 수업에 참여한 기간은 사회적 고립감(r = -.34, p 〈 .001), 학과소속감(r = .20, p 〈 .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Table 3. Result of analysis of difference in mean value of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control variable (independent T-test)

Variables	*Group*		*Levene's test*		*m*	*t*	*p*
			F	*p*			
Social isolation	Nationality	Resident	2.93	.090	2.03	-3.73	.000
		Foreigner			2.52		
	Face-to-face experience	Not have	3.79	.054	2.52	4.66	.000
		have			1.96		
	Student activities	Not applicable	3.32	.071	2.29	3.24	.002
		Applicable			1.86		
Sense of belonging	Gender	Male	.03	.855	4.49	1.99	.049
		Female			4.00		
	Face-to-face experience	Not have	3.39	.068	3.50	-4.72	.000
		have			4.56		
	Student activities	Not applicable	.01	.908	3.97	-2.88	.005
		Applicable			4.69		
	On-campus part-time	Not applicable	.05	.871	4.04	-2.32	.022
		Applicable			4.74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Face-to-face experience	Not have	3.41	.067	5.20	-2.71	.008
		have			5.75		
	On-campus part-time	Not applicable	.00	.955	5.43	-2.49	.014
		Applicable			6.06		

2)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과소속감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과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통제 변인을 추가한 다중회귀분석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학업지속의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β = -.33, p 〈 .01) 연구가설 1이 채택되었다(〈Table 4〉의 Model 2 참고).

사회적 고립감, 학과소속감, 학업지속의도의 관계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위의 〈Table 4〉 참고), 사회적 고립감은 학과소속감에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며(〈Table 4〉의 Model 5 참고) 학과소속감은 학업지속의도에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의 Model 3 참고). 즉, 독립변인인 사회적 고립감이 매개 변인인 학과소속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β = -.44, p 〈 .001), 매개 변인인 학과소속감은 종속 변인인 학업지속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β = .42, p 〈 .001). 연구가설 1을

Table 4. The main variable's relation analysis results(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V: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b	*t*	*p*	*VIF*	*b*	*t*	*p*	*VIF*	*b*	*t*	*p*	*VIF*
Gender(Male=0)	.05	.25	.804	1.08	.04	.22	.830	1.08	.16	.84	.404	1.1
Nationality (Resident=0)	-.07	-.29	.770	1.18	.14	.58	.561	1.28	-.14	-.66	.513	1.19
Student activities	.15	.67	.505	1.05	-.02	-.11	.915	1.11	-.05	-.22	.824	1.10
On-campus part-time	.50	1.94	.055	1.05	.48	1.95	.054	1.05	.35	1.45	.149	1.07
Real time on-line class	.13	.64	.525	1.10	.05	.23	.818	1.12	.08	.41	.680	1.11
Participated period	.06	.70	.487	1.14	-.01	-.12	.903	1.23	.04	.46	.645	1.15
Face-to-face experienced	.40	1.82	.071	1.23	.24	1.10	.273	1.29	.09	.43	.670	1.37
Social isolation					-.53	-3.19	.002	1.48				
Sense of belonging									.35	4.39	.000	1.33
$\triangle R^2$	.05				.12				.19			
F	1.93				3.11**				4.38***			
Durbin-watson					2.18				2.13			

	DV: Sense of belonging							
	Model 4				Model 5			
	b	*t*	*p*	*VIF*	*b*	*t*	*p*	*VIF*
Gender(Male=0)	-.32	-1.39	.167	1.08	-.33	-1.59	.115	1.08
Nationality (Resident=0)	.21	.82	.412	1.18	.53	2.18	.031	1.28
Student activities	.55	2.29	.024	1.05	.28	1.26	.212	1.11
On-campus part-time	.42	1.51	.134	1.05	.39	1.54	.125	1.05
Real time on-line class	.15	.66	.510	1.10	.02	.08	.939	1.12
Participated period	.07	.70	.487	1.14	-.04	-.50	.620	1.23
Face-to-face experienced	.88	3.65	.000	1.23	.63	2.77	.007	1.29
Social isolation					-.83	-4.79	.000	1.48
$\triangle R^2$	.20				.33			
F	5.23***				8.34***			
Durbin-watson					2.02			

	DV: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Model 6				Model 7				Model 8			
	b	*t*	*p*	*VIF*	*b*	*t*	*p*	*VIF*	*b*	*t*	*p*	*VIF*
Gender(Male=0)	.05	.25	.804	1.08	.04	.22	.830	1.08	.14	.72	.473	1.10
Nationality (Resident=0)	-.07	-.29	.770	1.18	.14	.58	.561	1.28	-.02	-.08	.935	1.33
Student activities	.15	.67	.505	1.05	-.02	-.11	.915	1.11	-.11	-.51	.614	1.13
On-campus part-time	.50	1.94	.055	1.05	.48	1.95	.054	1.05	.36	1.53	.129	1.07
Real time on-line class	.13	.64	.525	1.10	.05	.23	.818	1.12	.04	.22	.828	1.12
Participated period	.06	.70	.487	1.14	-.01	-.12	.903	1.23	.00	.03	.976	1.23
Face-to-face experienced	.40	1.82	.071	1.23	.24	1.10	.273	1.29	.06	.26	.792	1.38
Social isolation					-.53	-3.19	.002	1.48	-.29	-1.65	.101	1.79
Sense of belonging									.29	3.34	.001	1.60
$\triangle R^2$	.05				.12				.20			
F	1.93				3.11**				4.25***			
Durbin-watson					2.18				2.14			

* $p < .05$, ** $p < .01$, *** $p < .001$

채택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고립감이 종속변인인 학업지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므로, 바론과 케니가 제시했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바론과 케니가 제시한(Baron & Kenny, 1986) 위계적 회귀분석과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여 학과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인 사회적 고립감과 매개 변인인 학과소속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Table 4〉의 Model 8 참고)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학과소속감이 학업 지속 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유의미하였다(β = .35, p〈 .01). 소벨 테스트 결과(Z = -2.73, p〈 .01)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과소속감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연구가설 2가 채택되었으며, 사회적 고립감의 직접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은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통제 변인을 추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모델(F: 11.29, p〈 .01, Durbin-watson: 2.11)의 설명력은 26.7%였으며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학과소속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β = .28, p〈 .01). 이전 분석에서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변인은 학과소속감에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행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과소속감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형성된 선호하는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업 지속 의도를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선행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라는 조직에서의 상호작용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다면 중도탈락 의도와 같은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던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강명희 외, 2019; 박은주·이혜

경, 2016; 조옥희·황경혜, 2017; 최성애·박주영, 2018).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대학에 소속된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비대면 수업이나 학교 출입 통제와 같은 비자발적인 물리적 격리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감이 발생하므로(de Jong-Gierveld, 1987), 이들이 경험하는 비자발적인 물리적 격리는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업지속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은 4점 척도로 측정한 사회적 고립감의 평균값이 2.17이었으며, 국적 및 학생 활동 여부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m = 2.52)은 내국인 학생(m = 2.03)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을 더 강하게 경험하고,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학생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m = 1.86)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m = 2.29)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을 약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이나 학생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주목해야 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이라는 조직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선행연구에서 '과소 평가된 공중 보건 위험(Wu B, 2020)'이라고 설명할 만큼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Johnson et al., 2018).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학업 지속 의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논의를 확장하였다. 장기간의 격리 경험은 정신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Stickely & Koyanagi, 2016), 사회로부터 자신을 더욱 격리하는 고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Banerjee, & Rai, 2020).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 공동체 구성원인 대학(원)생과 대학 조직에 발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설명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은 학습자 개인의 측면에서 주요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친밀함과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준거 집단으로 작용하는 대학에서 사회적 관계를 획득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박미진, 2010)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학 공동체에서도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은 학업 지속 의도를 낮춤으로써 결국 조직을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에 주목했던 과거 연구들은 학습과 대인관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성원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고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Astin, 1993).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캠퍼스 폐쇄나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큰 도전이며, 사회적 고립감을 장기간 경험한다면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Hamza et

al., 2020).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 지속 의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의한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대학 조직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학과소속감은 매개 효과를 발휘하였다. 즉, 사회적 고립감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학과소속감을 낮춤으로써 학업 지속 의도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속감 저하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한 여러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석숙이, 2000; 송영아·김신애, 2019; 임연욱·이광희, 2003; 정용균·김중렬, 2018; 주영주 외, 2012; 최우경·김진숙, 2014). 사회적 고립감은 준거집단 구성원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Tomaka et al., 2006), 학과소속감은 학과라는 조직 내에서 자신이 가치있고 필요한 존재이며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감정을 의미한다(Hagerty et al., 1992). 즉,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면 학과 내에서 자신이 가치가 있고 필요한 존재이며 조직에 적합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워지고, 소속감 저하는 조직 이탈을 의미하는 학업지속의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학과소속감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적 고립감의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원)생 스스로 학과라는 조직에 가치가 있고 필요한 존재이며 적합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대학 공동체 구성원의 학업 지속 의도를 향한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일정 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학과소속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환경에서 경험하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한 선행연구(Hoffman et al., 2003; Meeuwisse et al., 2010)를 뒷받침한다.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미디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으나(Rihl, & Wegener, 2019; Sarah et al., 2019), 선행연구는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형성될 가능성도 언급하였다(Ballantine, 2005; Giles, 2002; Horton & Strauss, 1957). 특히 동영상 형태의 강의에 주목한 연구는(Beege et al., 2017)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형성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연구의 결과를 확장해서, 선호하는 교수자를 향해 형성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 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의 유의미한 선행변인이며, 대학(원)생의 학과소속감이 학업지속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학 조직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대학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대학(원)생의 학업지속의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학과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소속감은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이 조직에 가치가 있고 필요한 존재이며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감정에 주목한다(Hagerty et al., 1992). 즉, 이 연구는 대학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대학(원)생에게 자신이 학과라는 조직에 가치가 있고 필요한 존재이며 적합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 속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대면 상호작용을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온라인 수업에서 형성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을 높이는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학습환경에 놓인 학습자를 사회적·학업적으로 지지하며(Johnson et al., 2007), 학습 관련 상호작용은 소속감의 선행변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Meeuwisse et al., 2010). 선호하는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학과소속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반영하여, 온라인 수업에서라도 대학(원)생 스스로 자신이 학과라는 조직에 가치가 있고 필요한 존재이며 적합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처럼 면대면 상호작용이 어려울 때 사회적 관계를 향한 욕구 충족을 보완하는 것에 그친다고 강조하였다(Jarzyna, 2020).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대인관계에 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형성되어, 현실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Tukachinsky & Dorros, 2018). 본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면 소통 경험 여부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 학과소속감, 학업 지속 의도의 평균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평균값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독립적인 두 개의 변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즉, 선호하는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면대면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학과소속감 증진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안으로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학업 지속 의도의 관계에서 학과소속감의 매개 효과, 선호하는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논의하였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20세-35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120명의 응답을 수집하여 연구문제와 가설을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논의하였다. 즉, 코로나19 종식 이후 면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던 시기에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 대학의 비대면 수업 역시 이전의 감염병 사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특수한 성격의 물리적 격리 경험이었기 때문에, 각 변인을 측정하고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환경요인이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는 코로나19처럼 외부 요인에 의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향한 욕구 충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Jarzyna, 2020). 이에 따라,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면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적용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면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후속연구는 대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고, 면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학습을 통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선행연구는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에게 더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Arbaugh, 2000). 면대면으로 진행하는 학습환경에서는 특정 학습자가 토론이나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독점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상호작용이 익숙한 학습자에게는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온라인 상호작용이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경험하는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면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학습에서 경험하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적용하여 영향력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및 수업에서 설문조사 주소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용 가능한 집단에 의존하는 비확률 표집을 실시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이 100명이며(박원우·손승연·박해신·박혜상, 2010), 독립변인이 1개이고 표본 크기가 50명, 100명, 150명인 매개효과 분석에서 바론과 케니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소벨 테스트가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Caron, 2019)를 각각 참고하였다. 이처럼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하여 주요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를 살펴보았으나 주요 결과를 일반화할 만큼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은 이 연구의 분명한 한계이지만,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

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초창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후속연구는 표본 크기를 확대하고 다양한 특징을 고려한 할당표집을 실시하여 주요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연구의 표본은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소속된 대학(원)생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문 분야에 따라 중요한 상호작용의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승정, 2017)를 참고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결과가 학문 분야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집단에 의존한 비확률 표집 과정에서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차이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내국인 학생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후속연구는 할당표집을 실시하거나 더욱 큰 규모의 답변을 수집하여 집단 간 비교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간 비교분석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차이를 살펴보는 방향으로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확장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미디어를 통해 선호하는 인물에게 자주 노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최양호, 1999; Nordlund, 1978; Rubin et al., 1985), 자신이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에서 형성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동일시·관심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지닌다(최양호·김봉철, 2006). 이러한 결과는 동일시와 관심도에 따라 학과의 여러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다른 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한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는 여러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을 폭넓게 측정하여 주요 결과를 다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과의 여러 교수자를 향한 동일시와 관심도 수준에 따른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는 코로나19 상황처럼 면대면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였으나, 후속연구는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각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학습자의 선호도와 노출빈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여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학과소속감에 발휘하는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한다면, 다양한 교수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및 학과소속감 증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성인 초기 학습자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 지속 의도 저하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논의하였고, 온라인 수업에서 형성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대학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은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공중 보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성인 초기 학습자는 친밀함 혹은 고립감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감의 심각성은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논의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ferences

Ahn, J.-Y. & Kim, J.-N. (2017). The relations between adolescence social isolation experience and early adulthood interpersonal problem: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xperiential avoida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2), 89-119.

Arbaugh, J. B. (2000). How Classroom Environment and Student Engagement Affect Learning in Internet-based MBA Courses. *Business Communication Quarterly, 63*(4), 9–26.

Astin, A. W.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Bahk, Y.-C., Park, K., Kim, N., Lee, J., Cho, S., Jang, J., Jung, D., Chang, E., & Cho, K.-H. (2020). Psychological impact of COVID-19 in south korea: A preliminary stud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4), 355-367.

Ballantine, P. (2005). Forming Parasocial Relationships in Online Communiti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2*, 197-201.

Banerjee, D., & Rai, M. (2020). Social isolation in Covid-19: The impact of lonel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6*(6), 525–527.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ean, J. P. (1982). Student attrition, intentions, and confidence: Interaction effects in a pathmodel.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17*(4), 291–320.

Beege, M., Schneider, S., Nebel, S. & Rey, G.D. (2017). Look into my eyes! Exploring the effect of addressing in educational videos. *Learning and Instruction, 49*(1), 113-120.

Brooks, S. K., Webster, R. K., Smith, L. E., Woodland, L., Wessely, S., Greenberg, N., & Rubin, G. J. (202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quarantine and how to reduce it: rapid review of the evidence. *The Lancet, 395*(10227), 912-920.

Caron, P. (2019). A comparison of the type I error rates of three assessment methods for indirect effects. *Journal of Statistical Computation and Simulation, 89,* 1343–1356.

Cho, J. & Cho, H. (2017).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lder adults` use of online communities on socialization and social isolation.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JICS), 18*(2), 97-104.

Cho, O.-H. & Hwang, K. H. (2017). The impacts of social isolation,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sleep

disorde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depr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329-338.

Choi, S. A. & Park, J. Y. (2018). The effect of technostress on intent-to-persis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stress coping.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5*(1), 39-49.

Choi, W. & Kim, J.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2*(1), 1-25.

Choi, Y. (2012). The effect of external locus of control in college student's problem drinking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social isolation. *Alcohol and Health Behavior Research, 13*(1), 73-84.

Choi, Y.-H. (1999). Comparative analysis on tv news anchors parasocial interaction and professionalis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4*(1), 468-488.

Choi, Y.-H. & Kim, B. C. (2006). An Exploratory Study on Parasocial Interaction with TV Commercial Character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8*(4), 7-28.

Chung, Y. & Kim, J.-R. (2018). Factors to disturb adult learner's e-learning persistence: A case study of h-cyber university in seoul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2), 109-122.

de Jong-Gierveld J. (1987). Developing and testing a model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 119–128.

Erikson, E. H. (1968). *Identity and crisis.* London: Faber & Fabe.

George, D., & Mallery, P. (2010).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study guide and reference (10. Baskı)*. GEN,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Giles, D. C. (2002). Parasocial inter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model for future research. *Media Psychology, 4*(3), 279–305.

Goodenow, C. (1993). The Psychological Sense of School Membership among adolescents: Scale development and educational correlates. *Psychology in the Schools, 30*(1), 79–90.

Hagerty, B. M., Lynch-Sauer, J., Patusky, K. L., Bouwsema, M., & Collier, P. (1992). Sense of belonging: a vital mental health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6*(3), 172–177.

Hall, J. A., & Davis, D. C. (2017). Proposing the Communicate Bond Belong Theory: Evolutionary Intersections With Episod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heory, 27*, 21-47.

Hamza, C. A., Ewing, L., Heath, N. L., & Goldstein, A. L. (2020). When social isolation is nothing new: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COVID-19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and without preexisting mental health concerns.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dx.doi.org/10.1037/cap0000255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Hoffman, M., Richmond, J., Morrow, J., & Salomone, K. (2003). Investigating 'sense of belonging'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4*(3), 227–256.

Holt-Lunstad, J., Smith, T. B., Baker, M., Harris, T., & Stephenson, D.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 a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10*(2), 227–237.

Horton, D., & Strauss, A. (1957). Interaction in audience-participation show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6), 579–587.

Horton, D., & Wohl, R. R. (1956). Mass communication and para-social interaction. *Psychiatry, 19*, 215–229.

Im, Y. & Lee, K. (2003). A study on the dropout problem in korean online universities: Searching for its solution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0*(3), 321-348.

Jarzyna, C. L. (2020). Parasocial Interaction, the COVID-19 Quarantine, and Digital Age Media. *Human Arenas*, 1–17.

Jeong, H.-W. (2020). A study about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isolation experienced by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9), 589-603.

Johnson, B. R., Pagano, M. E., Lee, M. T., & Post, S. G. (2018). Alone on the Inside: The Impact of Social Isolation and Helping Others on AOD Use and Criminal Activity. *Youth & Society, 50*(4), 529–550.

Johnson, D. R., Soldner, M., Brown Leonard, J., Alvarez, P., Kurotsuchi Inkelas, K., Rowan-Kenyon, H., et al. (2007). Examining sense of belonging among first year undergraduates from different racial/ethnic group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8*(5), 525–542.

Joo, Y.-J., Yoo, N.-Y., & Seol, H.-N. (2012). Multi-group analysis of employment status in isolation, interaction, content satisfaction, achievement and persistence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5), 525-540.

Jun, S. (1999).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the high-schools' moral climate*. Master thesis of Department of Edcuation Graduate Schoo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g, M., Lea, E., & Lee, E. (2019). Trends and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s' dropout intention. *Forum For Youth Culture,* 5-30.

Kim, C. N., Park, S. M., Park, S. H. & Kim, S. I. (2018). *Analysis of types of social isolation and support plans*. Gyeonggi: Gyeonggi Welfare Foundation

Kim, J. & Park, E. (2016). The effects of achievement type of developmental tasks of early adulthood on the perceived social isolation in youth. *Studies on Korean Youth, 27*(3), 257-284.

Kim, J. Jung, S.-Y., & Kim, E.-J.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s between the sense of school belonging and student engagement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5*(3), 1-29.

Kim, S. (2017).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nd education in doctoral education by academic disciplin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5(2), 227-251.

Kim, T. H. (2014). The challenges of social welfare education i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sector : Focusing on Relationship between unmet health services needs and social isol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5*, 123-146.

Kim, W., Lee, T., & Chang, J. (2019).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use of mirror-image as a preventive measureof careless responding in online survey research.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8*(4), 669-698.

Kim, Y. B. (2018).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cognitive function in elderly Kore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7), 429-439.

Kwon, S. (2016). The influences of social presence on perceived cognitive and emotional effects of online discussion. *The Journal of Education Information and Media, 22*(1), 1-29.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York: GuilfordPress.

Lüdecke, D., & von dem Knesebeck, O. (2020). Protective Behavior in Course of the COVID-19 Outbreak-Survey Results From Germany. *Frontiers in public health,* 8, 572561.

Lee, C. S. (2012).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 korea.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2), 121-140.

Lee, E. & Kim, Y. (2015). Differences in the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by instructor`s social intervention and its effects on learning satisfaction in an online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8*(3), 69-78.

Lee, D.-H., Kim, Y.-J., Lee, D.-H., Hwang, H.-H., Nam, S.-K., & Kim, J.-Y. (2020).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4), 2119-2156.

Lee, H. (1997). *A study on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victims and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To prepare intervention in school social work*. Master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Soongsil

University.

Lee, H.-S. & Na, E.-Y. (2020). Perceived viol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watching game youtube influencer video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a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7*(1), 79-113.

Lee, M. (2015). *Structural relationship for influencing major persist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Master thesis of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at Ewha Womans University.

Lee, R. M., & Robbins, S. B. (1995).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32–241.

Lee, Y. (2006). A study on the developing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from dropou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9*(1), 95-104.

Malcolm, M., Frost, H. & Cowie, J. (2019).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causal association with health-related lifestyle risk in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rotocol. *Systematic Reviews, 8*(48).

Maslow, A. H. (1987). *Motivation and personality (3rd ed.).* Boston, MA: Addison-Wesley.

Meeuwisse, M., Severiens, S., & Born, M. (2010). Learning Environment, Interaction, Sense of Belonging and Study Success in Ethnically Diverse Student Group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1*(6), 528-545.

Naja, F., & Hamadeh, R. (2020). Nutrition amid the COVID-19 pandemic: a multi-level framework for action.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74*(8), 1117–1121.

Namin, S. (2003) Transactional Presence as a Critical Predictor of Success in Distance Learning, *Distance Education, 24*(1), 69-86.

Nordlund, J.-E. (1978). Media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5*(2), 150–175.

Park, E. & Lee, H. (2016).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college dropout intention for freshmen in college : Focused on k-college. *Forum For Youth Culture*, (46), 91-111.

Park, J. Y. (2016).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reason for liv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thoughts: Focused o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6, 1-22.

Park, M. J. (2010). Social isol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low-income older adults: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0*(3), 895-910.

Park, M. & Chung S. (2020). The effect of social isolation of young generation on perception and behavior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older peopl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generational conflic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0*(6), 1383-1401.

Park, S. H. & Choi, Y. H. (2020).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the social isolation of middle-aged males with high risk of lonely death: Focused on emergency welfare support recipient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68, 45-78.

Park, W.-W., Son, S. Y., Park, H., & Park, H. S. (2010). A proposal on determining appropriate sample size considering 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 *Seoul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1*, 51-85.

Pett, M. A., Lackey, N. R. & Sullivan, J. J. (2003) *Making sense of factor analysis: The use of factor analysis for instrum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Polizzi, C., Lynn, S. J., & Perry, A. (2020). Stress and coping in the time of covid-19: Pathways to resilience and recovery. *Clinical Neuropsychiatry, 17*(2).

Rihl, A., & Wegener, C. (2019). YouTube celebrities and parasocial interaction: Using feedback channels in mediatized relationships. *Convergence, 25*(3), 554–566. https://doi.org/10.1177/1354856517736976

Rubin, A. M., Perse, E. M., & Powell, R. A. (1985). Loneliness, parasocial interaction, and local television news viewing.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2*(2), 155-180.

Sarah F. R., Jayson L. D. & Tilo H. (2019) Does the Experience of Parasocial Interaction Enhance Persuasiveness of Video Public Service Message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36*(3), 201-208.

Seok, S. (2000). *A study on social work intervention for school life readjustment of dropouts*. Master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Busan University.

Short, R. V. (1976). Definition of the problem-the evolution of human reproduction.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195*(1118), 3-24.

Smith, K. J., Gavey, S., RIddell, N. E., Kontari, P., & Victor, C.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inflamm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112*, 519–541.

Song, I. & Cho, S. (2013). The Effects of Survey Modeon Social Desirability Bias: A Comparison of Telephone, Face-to-Face and Online Survey Responses. *Survey research, 14*(2), 165-199.

Song, Y. A. & Kim, S. (2019). Factors affecting college freshmens intention to drop ou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6), 257-270.

Stickley, A., & Koyanagi, A. (2016). Loneliness, common mental disorders and suicidal behavior: Findings from a general population surve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7*, 81–87.

Tinto, V. (1987).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omaka, J., Thompson, S., & Palacios, R. (2006). The relation of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to disease outcome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8*(3), 359–384.

Townsend, P. (1955). The family life of old people: An investigation in east london. *The Sociological Review, 3,* 175-195.

Tukachinsky, R., & Dorros, S. (2018). Parasocial romantic relationships, romantic beliefs, and relationship outcomes in USA adolescents: rehearsing love or setting oneself up to fail?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12*(3), 329–345.

Usher, K., Bhullar, N., & Jackson, D. (2020). Life in the pandemic: Social isola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9*(15-16), 2756–2757. https://doi.org/10.1111/jocn.15290

Vincenzi, H., & Grabosky, F. (1987).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2*(2), 257–270.

Weinberger, M. I., Hofstein, Y., & Whitbourne, S. K. (2008). Intimacy in Young Adulthood as a Predictor of Divorce in Midlife. *Personal Relationships*, *15*(4), 551–557.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The MIT Press*

WHO (2020, 12, 28).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Retrieved 12/28/20 from https://covid19.who.int/

Wu B. (2020).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older adults in the context of COVID-19: a global challenge. *Global health research and policy*, *5*, 27.

Yanjinlkham, J. & Kim, S. H. (2019).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mongolian students' dropout from the college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5), 219-226.

Yoo. S. (2019, 12, 2). *160,000 foreigners studying at domestic universities, the largest ever… 210,000 Koreans to study abroad Lowest in 12 years.* The Chosun Ilbo. Retrieved 12/27/20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2/2019120200154.html

최초 투고일 2021년 2월 5일
게재 확정일 2021년 3월 22일
논문 수정일 2021년 3월 31일

부록

강명희·이은경·이응택 (2019).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의 변화 추이와 영향 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30.

권성연 (2016).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사회적 실재감 하위요인이 지각된 토론효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2(1), 1-29.

김승정 (2017). 대학원 교육에서 나타나는 학문 분야별 연구 및 교육 특징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2), 227-251.

김영범 (2018).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인지기능의 관계에 대한 일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7), 429-439.

김우영·이태헌·장재윤 (2019). 온라인 설문에서 거울 이미지를 활용한 불성실 응답 방지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4), 669-698.

김재희·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김지영·정세영·김은지 (2019). 대학생의 학교소속감과 학습참여의 관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사고개발, 15(3), 1-29.

김태형 (2014). 보건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교육의 과제: 미충족 보건서비스와 사회적 고립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25, 123-146.

김춘남·박승민·박승희·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 경기복지재단

박미진 (2010). 빈곤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3): 895-910.

박민선·정순둘 (2020). 청년세대의 사회적 고립이 노인차별행동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40(6), 1383-1401.

박선희·최영화 (2020). 중장년 남성 고독사 고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 45-78.

박원우·손승연·박해신·박혜상 (2010). 적정 표본크기(sample size) 결정을 위한 제언. 노사관계연구, 21, 51-85.

박용천·박기호·김나은·이주희·조수린·장지희·정다운·장은진·최기홍 (2020). COVID-19, 한국에서의 심리적 영향: 예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4), 355-367.

박은주·이혜경 (2016).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6),

91-111.

박진영 (2016). 사회적 고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살하지 않는 이유의 조절효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 36, 1-22.

석숙이 (2000). 중도탈락 학생의 학교 재적응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 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영아·김신애 (2019). 전문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257-270.

송인덕·조성겸 (2013). 서베이 모드와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전화 면접, 대면면접, 온라인 서베이 응답 비교. 조사연구, 14(2), 165-199.

안지영·김종남 (2017). 청소년 사회적 고립 경험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2), 89-119.

양징르함·김사훈 (2019). 재한 몽골 유학생의 중도 탈락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5), 219-226.

유소연 (2019, 12, 2). 국내대학 유학 외국인 16만명 역대 최대… 해외유학 한국인 21만명 12년만에 최저. 조선일보. Retrieved 12/27/20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2/2019120200154.html

이동훈·김예진·이덕희·황희훈·남슬기·김지윤 (2020).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119-2156.

이명화 (2015). 공과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학효능감과 결과기대, 흥미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애 (2006). 대학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서정신과학, 9(1), 95-104.

이의길·김윤정 (2015). 온라인대학에서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에 따른 교수자 사회적 실재감의 차이 및 이들의 관계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8(3), 69-78.

이채식 (2012). 중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21-140.

이혜선·나은영 (2020). 게임 유튜브 인플루언서 동영상 시청에 따른 중학생의 폭력성 지각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1), 79-113.

이희령 (1997).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학교사회사업적 개입 마련을 위하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연욱·이광희 (2003).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중도이탈 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30(3), 321-348.

전수경 (1999). 고등학교 도덕풍토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용균·김중렬 (2018). 성인학습자의 e-러닝 학업지속 장애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 서울소재 H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6(12), 109-122.

조옥희·황경혜 (2017).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수용, 수면장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15(11), 329-338.

조재희·조해영 (2017). 노령층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사회화와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8(2), 97-104.

정혜원 (202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9), 589-603.

주영주·유나연·설현남 (2012). 사이버대학생의 직장 유무에 따른 고립감, 상호작용, 콘텐츠만족도, 성취도 및 학습지속의향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525-540.

최성애·박주영 (2018). 간호대학생의 테크노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근관절건강학회지, 25(1), 39-49.

최양호 (1999). TV뉴스앵커의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전문성 비교분석. 한국언론학보, 44(1), 468-488.

최양호, 김봉철. (2006). TV 광고에서의 유명인 모델과 준사회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광고홍보학보, 8(4), 7-28.

최우경·김진숙 (2014).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1-25.

최윤정 (2012). 대학생의 외적 통제소재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고립감의 매개효과.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3(1), 73-84.

국문초록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의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 연구
학과소속감과 학업지속의도를 중심으로

이혜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ZHOU NAN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조재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부교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학은 캠퍼스 폐쇄나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과 같은 유례없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감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발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과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온라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학과소속감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연구문제와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20명의 답변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학과소속감과 학업지속의도에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과소속감은 매개 효과를 발휘하였는데, 학과소속감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적 고립감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고립감은 학과소속감을 통해 학업지속의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온라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대학(원)생의 학과소속감에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사회적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두 변인은 학과소속감에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행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온라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대학(원)생의 학과소속감을 높이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코로나19, 사회적 고립감,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학과소속감, 학업지속의도